

오래전, 제가 백인이 주로 다니던 중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. 학교에서 걸어가던 중, 나는 수십 년 동안 내 기억 속에 자리 잡을 한 일을 목격했습니다. 저보다 몇 야드 앞서 걸어가던 조제트라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. 저는 그녀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. 그녀의 피부색은 대부분의 학생들과 같았지만, 그녀의 걸모습은 다른 여학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. 그녀는 긴 검은 치마와 스웨터, 진한 검은색의 브로건 (발목까지 오는 투박한 작업화)을 신었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곤 했습니다 (이슬람 여자들 쓰는 부르카나 히잡은 아니었고요).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가까웠을 때 몇 명의 남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저는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. “더러운 유태인아,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!” “너는 못생겼어!” “아무도 네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!” 다른 불친절한 말들도 많았습니다. 나는 유태인 (Jew)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지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양 앞만 바라보고 곧장 교실로 갔습니다.

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, “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.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,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” (이사야 56 장 1 절).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“옳은 일을 하는 데 적기는 없다”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. 이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화해의 선물처럼 소중한 선물입니다. 내가 조제트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.

화해 사역 (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)은 우리 각자에게 "옳은 일을 할" 기회를 제공합니다. 당신의 헌금은 대학생들의 리더십 개발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우며, 다양한 사역 파트너들이 반인종주의와 관련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. 당신의 헌금은 One Bag of Tea 프로그램을 통한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, 교회 공동체들이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인종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.

그렇습니다!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“무르익은 때”입니다. Reconciliation Ministry 를 위한 당신의 지원과 관대함에 미리 감사드립니다!

Gracefully Submitted by  
Karon Alexander